

원로스님에게 듣는다

위기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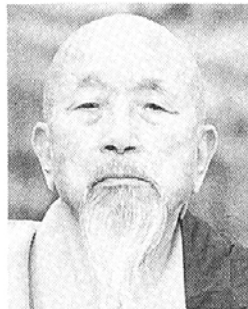
‘나만 잘살면’ 큰 병폐... 인과법 알아야

대지가 물살을 앓고 있다. 생태계도 성한곳이 없다. 눈에 보이는 세상, 귀에 들리는 세계가 모두 썩어가고 있다. 요즈음 한반도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본지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오늘의 위기 극복과 '청정국토' 회복의 길을 원로스님들의 청담법어로 듣는다. (계재 무순) <편집자 주>

질문

- 1 '심청정·국토청정'이라고 했는데, 세상이 자꾸만 오락악세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물흐르듯 늘 여여한 것이 법계라면 오늘 이 위기상황도 그대로 법계의 한 모습입니까?
3 우주에 존재하는 유정·무정 일체가 주인공으로서 공생하는 것이 자연의 질서 일진대 인간이 환경을 오염·파괴하는 이유는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그 병폐의 뿌리와 과보가 궁금합니다.
4 경제난이 심각합니다. 극복 할 수 있는 지혜를 알려 주십시오.
5 돈과 명예가 있는 곳에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한보사태 역시 그 한 예인데요, 부정부패를 근절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6 생각없는 사람들의 과소비도 우리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이들을 일깨워 주십시오.
7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큰 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우는 대권주자에게, 그리고 주권행사를 할 국민에게 각각 바른 정치의 길을 알려 주십시오.
8 북한동포를 돕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한가요.

비룡스님 <월정사 조실>



뿌린 씨앗 스스로 거둬야

1 조선시대에는 양반에 둘러싸여 살다가 일제시대에는 총·칼에 억압을 당하고 해방이 되어 민주주의로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예외와 도덕심은 땅에 떨어지니 나라가 혼잡한 것이요, 돈만 있으면 양반이 되니 오락악세가 된 것이다.
2 지금이라도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 대학까지 <동충선승> <명심보감> <대학> <소학>을 가르쳐야 예외와 덕심(德心)을 알고 청소년들이 탐관오리 받을 줄을 안다.
3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는 자신이 거두는 것임을 안다면 삼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 부귀공명 누렸다고 기세 등등하지 말고 돈자랑 마오, 어리석음의 극치일세. 부족할 때 만족할 줄 알고 절제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
5 불법(佛法)을 바로 알아 인과(因果)가 있으면 과보(果報)를 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정치가는 반드시 사리사욕이 없을 것이다.
6 과소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한다. 노동자와 농민이 부귀해야 하고, 공업(工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한다.
7 이 세상에서 준 것은 받고 받은 것은 같아야 한다. 인과와 과보를 아는 사람, 사리사욕 없이 정치를 잘 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말을 먼저 내세우고 언변만 좋은 사람은 실속이 없다. 진실한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한다. 지도자가 국민을 잘 살게 하고 편안하게 할 때 중년 이 들고 나라가 태평해 진다. (王養安時年豐太平乾坤)
8 북한동포를 구제하는 식량을 보내면 군량미로 전용하고 옥수수만 양민에게 돌아간다. 식량을 주되 화합통일(和合統一)에 도움이 되도록 주어야 한다. 화합통일이 된다면 남한에서 식량을 많이 구해서 도와줘야 하고, 통일이 되면 수해지역을 복구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남한에서 민반의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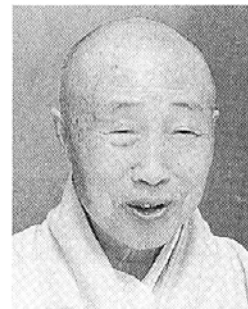
덕암스님 <태고총림 방장>



봉사심내는 정치인 선택

1 세상이 혼탁해지고 인간성이 상실돼가는 근본적 원인은 다름 아닌 우리의 사리사욕에 있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악이 만연하고 사악한 생각이 무성한 것은 우리 인간이 탐진치 삼독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물론 이것도 법계의 한 모습 그대로다. 무위(無爲) 유위(有爲)의 모든 제법(諸法)이 법계인데 어찌 이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3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공동도덕적성이 결여돼 있으니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주변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오염된 환경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
4 경제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전국민이 하나가 돼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긴축·절약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분수에 맞는 생활이야말로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지름길이다.
5 부정부패는 사리사욕에서 비롯된다. 사리사욕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심의 발로다. 부처님 법이 오늘날까지 여여히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이의 행복을 우선시했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한다.
6 과소비는 제 마음을 모르고 확고한 생활신념이 없기 때문이 비롯되는 것이다. 마음을 청정히 하고 이타행을 깨달아 보라. 거기에 불법이 있고 행복이 있다.
7 대권주자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욕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구태는 이제 벗어나야 할 때다.
8 오직 동포애로서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함께 한다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한다. 도와줘도 돈은 것이 없고 받아도 받은 것이 없는 서로가 하나라는 일체감이 필요하다.

성수스님 <법수선원 조실>



탐심은 이웃까지 망쳐요

1 중생계는 천재지변이나 물질로 인한 재앙 또는 인간 사이의 인제 등 장애가 많다. 불심이 깊고 수행이 철저하면 재앙에 슬기롭게 대처하지만, 어리석고 어두우면 혼미에 빠진다. 결국 지혜가 밝아야 묘리가 생긴다. 수행하라.
2 시운(時運)에 따라서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 되어 진다.
3 세상이 이치가 인과응보의 도리속에서 이루어 진다. 내가 거울을 들여다 보면 내 모습이 거울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인과는 결국 내가 지어 내가 받는 것이다. 또한 업력은 수미산을 대적하며 바다보다 깊고 죽은 뒤에도 과보를 받는다. 괴를 나는 부자(父子) 사이라 할지라도 사후에 같 같이 각기 다르며 과보를 대신하여 받아줄 수도 없다. 또한 인과의 도리는 외상(外相)이 일 초(秒)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4 경제가 정말로 소중한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불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깨달음이며 지혜이다. 인생 경제 우주의 이치를 꿰뚫어 명철한 깨달음 속에 경제의 이치도 열린다.
5 극악한 한마디로 말해서 다 죽어야 한다.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탐심의 악은 개인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 심지어 나라까지 망치는 고질적인 망국병이기 때문이다.
6 돈이 귀한 줄 알때가 목전(目前)에 있다.
7 나라와 국민을 위한 애국자는 눈 닦고 봐도 안 보인다. 눈 뜬 국민이 없기 때문에 눈 뜬 대통령이 없다.
8 나는 70년대 부터 남한 백성 모두가 하루에 십시일반(쌀 한술, 돈 100원)으로 모아서 도와주자고 주장했지만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미 6.25 한국전쟁 직후 3천만 동포가 진정 민족의 앞날을 한치라도 생각해 통일을 먼저 고려했다면 지금에 와서 도와야 하니 말아야 하니 할 것도 없다.

승상스님 <화계사 조실>



진짜 버려야 청정심 회복

1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모양과 이름에 집착하여 살게 되면 본래 마음을 모른다. 모양과 이름에 집착하지 아니할 때 본래성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때 6근은 청정해지고 오락악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법계의 사물은 천차만별이나 서로 인과 관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어느 하나도 혼자서 존재할 수 없다. 즉 우주의 만물은 각기 하나와 일체가 서로 연유하여 있는 중중무중한 관계에 있다.
3 실리주의에 빠져 우주의 대원칙을 파괴한 것이다. 눈앞의 이익과 편리만을 위해 우주의 철리를 어긴 것이다. 이로 인해 환경뿐만 아니라 윤리, 사상까지 무분별하게 파괴됐다. 자연과 인간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오늘날의 심각한 경제난은 복합적인 문제이다. 하루빨리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 한가족, 한민족이라는 동체심을 지녀야 한다.
5 부와 명예는 독사와 같이 자칫하면 눈과 귀를 멀게 한다. 특히 부와 명예의 달콤함에 빠지게 되면 나라의 경제까지 썩게 된다. 한보사태 역시 이러한 결과다. 재물의 탐욕에서 벗어나 절제하고 자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6 무절제한 소비문화가 만연될 때 그 가정과 사회는 서서히 부패되고 결국 존폐의 위기까지 처하게 되는 법이다. 모든 사람들이 '나 하나쯤'이라고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먼저'라는 소비관을 가져야 한다.
7 대통령은 국민의 지도자이다. 후보자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애정을 갖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정치적 경험보다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8 북한이 미운것은 김씨집안의 정권이 지 그 체제 밑에서 신음하는 동포는 아니다. 우리가 진정 전쟁을 막고 남북화해를 이루어 한다면 북한이 가장 절박하게 식량을 원하고 있는 지금 도와야 한다.

우룡스님 <학성선원 한주>



내형제가 굶고 있는데...

1 마음의 주춧돌을 잘못 놓은 것에 원인이 있다. 물질도 정신도 아닌 우주의 중심에 주춧돌을 세워야 하는데 물질의 세계에 맞춘 가치관을 내리니 착각할 수 밖에 없다. 정신과 물질이 갈라지기 이전의 세계를 참구하는 것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2 오늘의 위기상황은 자신이 만든 것에 불과할 뿐 본래 있는 위기상황은 아니다. 내가 흐려지니까 대우주도 전부 흐려지는 것이다. 흐려진 가치기준에서 벗어나 자신을 맑고 순수하게 밝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
3 물질과 육체에 주춧돌을 놓다 보니 육체에서 야기되는 욕망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한다. 자연과 대우주의 진리에 맞추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 맺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4 욕심은 끝이 없다. 그러나 자기의 분수를 정확히 깨우쳐 욕심을 비워야 한다. 그러면 경제난이라는 것은 없다.
5 모두들 생각하는 데투리가 너무 많다. 경제계 정치계 할 것 없이 몸동아리의 이름만 생각한다. 내가 뿌리는 씨앗이 어떤 열매를 가져 올 것인지도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
6 심안을 떠나야 되는데 육안으로 쳐다보면 언제나 속여준다. 항상 진리를 향한 마음으로 자기 발등에 칼이 떨어지는 지, 불이 떨어지는지 똑똑히 살펴야 한다.
7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양심을 되찾아 봐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 없다. 그리고 국민들은 자기 발등 찢고 사는 사람들이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도록 마음을 순화해야 한다.
8 북한동포라도 거리를 두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 내 형제가 배가 고프고 굶고 있다는 생각으로 도와야 한다. 내가 배고파서 먹을 것 챙겨 먹듯이 그렇게 도와야 한다.

법륜사 양로원 안내문

노후를 부처님과 함께 ...

삼보귀의 하소요
급변하는 사회적인 변화로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고 개인주의 만연과 물질이 좌우하는 배금사상의 통니바퀴속에서 우리의 자량인 효(孝)의 근본(根本)이 흔들리는 현실속에서 허덕이다 보니 부모와 자손 형제동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인성이 무너지는 것을 어찌하리!
이러한 불안요소가 정년퇴직하신 분이나 연로하신 노인분께서는 한을 갖게됨에 따라 가족간에 갈등이 심화되니 누구에게 책임 있던 말인가?
하루가 일년같이 빠르는데 살고 있는 연법(緣法)인 것을 세상을 떠났다고도 연법은 계속 유지되는 것!
우리 불자님께서는 인연법을 중요시 하므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효행을 할 수 있는 길은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편안케 해 드리는 것이 유일한 효행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소승이 평소에 보고 들은바 원력에 힘입어 급변 가야산과 지리산이 합쳐진 만대산에 산수 수려하고 운치 좋은자리에 법륜사 대웅전 및 양로원을 장건함에 따라 낙성식림에 불성 깊은 불자님과 인연되어 남녀노인을 자비심 도량에 모시기를 부처님전에 예를 올립니다! 아담한 현대식과 한옥이 어울린 최고의 설계 및 시설

또한 자체농사로 무공해 음식을 제공하면 가족분이 오셔서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특히 주말 농장을 입주하신 노인분들의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육당 및 독서실, 오락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되고 또한 일하고 싶긴 삶이 지치고 허한 가슴에 맺혀있는 한을 기도와 좌선예불 등을 통해서 노인의 자성이 밝아 성불할 것이며 이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신 가족분들께서도 그 공덕이 세세 손손까지 부처님의 복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노인분들의 건강과 취미에 따라서 비구니 스님께서 불보살을 대하듯 자비심으로 모시게 되오니 많은 인연을 지면을 통해 남·녀 노인분을 한정된 인원까지 모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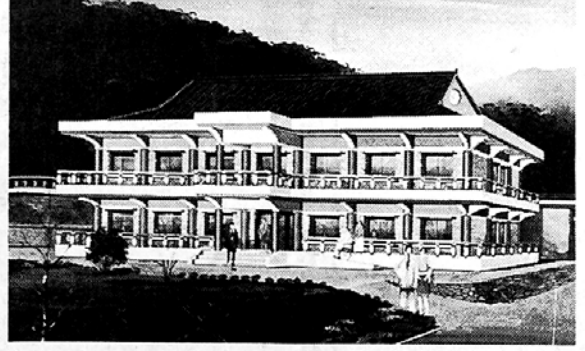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구분 (Category) and 내용 및 금액 (Content and Amount). Rows include 1. 구 분, 2. 남·녀 총인원, 3. 방 1실 인원, 4. 평생양로부담금, 5. 부부양로부담금, 6. 평생환불부담금, 7. 고시준비생, 8. 편의 시설, 9. 접수 년월 일, 10. 입주 년월 일.

※ 뜻과 불심의 행을 신천하는 가정에 삼보의 자비가 중한하소서
※ 빠른 시일안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미리 접수바랍니다.
문의안내 : 함천법륜사 (0543)955-1379
마산법륜사포교당 (0551)21-8775
계좌번호 : 우체국 610097-0119059(김상봉)
대구은행계좌 : 208-08-024746(손동분)

법륜사 주지 김운봉 총무스님 손자혜 총무 정병진 합장